

◆ KfW, 2002년 상반기 중 286억 유로 규모의 중장기 자금 조달

KfW는 2002년 상반기 중 사상 최대 규모인 286억 유로에 이르는 중장기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 중에는 각각 50억 유로 규모의 5년 및 10년 만기 유로貨 벤치마크 채권도 포함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던 금융시장 여건 속에서도 투자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유로貨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유로貨 표시 중장기채 시장에서 KfW의 중장기채는 기존의 독일 연방정부채(Bund)를 대신하는 벤치마크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KfW는 당초 2002년 중 유로貨 벤치마크 채권으로 150억 유로를 조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KfW는 상반기 중 각각 30억 달러 규모인 3년 및 5년 만기 미 달러貨 표시 글로벌 본드를 발행하여 이중 50%를 미

국내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자금 조달원의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초만 해도 KfW는 금년 중 신규 자금소요 규모를 약 400억 유로로 예상하였으나, 평년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금 조기 상환비율, 일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 등에 기인하여 실제로는 450억~5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최근 수정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KfW는 하반기중 50억 유로 규모의 유로貨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며, 투자자 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30억 달러 규모의 미 달러貨 표시 채권 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金基相】